

다케우치 가문은 에도시대(1603-1867 년) 말기에 아와가마치에 저택을 지은 상인이었습니다. 그들은 직접 생산한 차와 간장, 술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했습니다. ‘센레이차’로 알려진 녹차의 도매업자로서 아득히 먼 교토에서까지 호평을 받았습니다. 센레이차는 지금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, 센레이차를 이용해 만든 과자도 인기가 많습니다.

그 당시 상인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다케우치 가문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있는 방을 점포로 사용했습니다. 저택 뒤쪽에는 4 개의 창고가 세워져 있었는데, 현재는 하나만 남아있습니다. 불단은 저택 중앙의 방에 놓여있습니다.